

1. 4살 언어천재, 길바닥·공사판 누워 생떼...오은영 "앞뒤 안맞아"

25일 방송되는 채널A 예능 프로그램 '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에서는 길바닥에 드러눕는 언어 천재 4세 아들의 사연이 공개된다.

이날 스튜디오에는 36개월 아들과 9개월 딸을 키우고 있는 부부가 출연한다. 엄마는 "금쪽이가 **호기심도 많고, 집중력도 좋고, 언어 능력이 뛰어나다**"며 **아들 사랑을 한다.**

선공개된 영상에서는 금쪽이가 식탁에 앉아 꺾을 먹으며 "apple, watermelon, orange" 등 과일 이름을 영어로 술술 이야기한 뒤, 영어로 신나게 노래를 불러 눈길을 끈다.

이를 지켜보던 홍현희와 장영란은 "영어를 이렇게 재밌게 한다고?"라며 화들짝 놀라며 금쪽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다.

두 명의 열혈 맘들은 엄마에게 '금쪽이가 영어를 언제부터 잘했는지', '끝나고 어머님 대기실에 찾아가도 되는지' 등 질문 공세를 펼치며 숨길 수 없는 부러움을 드러낸다.

이어지는 영상에서 금쪽이는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다가도 "집에 가자"는 엄마의 말에 갑자기 지저분한 놀이터 바닥에 드러눕는 모습을 보인다.

금쪽이는 아스팔트 바닥에도 거침없이 드러누워 모두를 놀라게 한다. 미끄럼틀 계단에 거꾸로 눕는가 하면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산책로에도 드러누워 울며 떼를 쓴다. 아빠는 "공사판 바닥에도 드러누웠다"고 해 모두를 놀라게 한다.



이렇듯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디든 자기 집 안방처럼 드러누워 버리는 금쪽이. 엄마는 제작진에게 이런 금쪽이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은 영상과 사진을 엄마는 무려 70여 개나 보내 사상 최대 제보를 기록했다는 후문이다.

금쪽이의 일상을 관찰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는 "애는 왜 그럴까? 뭔가 앞뒤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은 느낌. 충분히 말로 할 수 있는데"라고 말하며 의문을 제기한다.

충분히 자신의 의견을 말로 전달할 수 있을 만큼 뛰어난 언어 능력을 가진 금쪽이가 장소불문 어디서든 드러누워서 떼쓰는 이유는 무엇인지 25일 저녁 8시 방송되는 채널A '요즘 육아-금쪽같은 내새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어진 영상에서는 공원에 놀러 간 금쪽 가족의 모습이 보인다. 신이 나 돌아다니던 금쪽이는 집으로 가자는 아빠의 말을 듣자마자 길바닥에 이마를 댄 채 드러누워 버리는데. 시멘트 바닥에 엎드려 대성통곡하는 금쪽이를 보며 심각한 부모와 달리, 패널들은 금쪽이의 귀여움에 웃음이 터지고, 이에 오은영은 "매우 중요하고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다"라면서 감정을 충분히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언어 천재 금쪽이가 왜 길바닥에 누워버리는 것인지, 그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찜질방에 간 가족의 모습이 보인다. 홀로 찜질방을 돌아다니던 금쪽이는 수면 कु을 들어갔다 나오는 행동을 무한 반복하는데. 이에 오은영은 "금쪽이는 탐색과 탐구를 하며 만족감을 느끼는 아이"라고 분석하는 반면, 엄마 아빠는 그런 금쪽이에 대한 "지지와 공감이 부족하고, 훈육과 금지에만 비중이 쏠려 있다"라고 지적한다.

한편 아이들이 잠든 후 야식을 먹으며 대화하는 부부의 영상이 이어진다. 엄마는 "금쪽이는 왜 동생을 때리는 걸까"라며 고민을 토로하고, 아빠 역시 가장 걱정되는 것이 "폭력성이다"라고 고백하는데. 알고 보니 금쪽이가 생후 9개월인 동생을 밀거나, 발로 밟는 등의 위험 행동을 보이고 있었던 것. 잠시 후, 금쪽이가 자신에게 기어 오는 동생의 머리를 가격하는 영상이 이어지고, 이에 엄마는 인형을 가져와 "동생 대신 인형을 때려!"라며 몸소 시범까지 보인다. 엄마의 과격한 훈육법에 놀란 오은영은 "STOP"을 외치는데, "감정을 격한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면서, 아이의 폭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금쪽이는 자신만의 영역과 경계가 중요한 아이"라며 금쪽이가 동생의 접근을 거부한 진짜 이유를 날카롭게 분석한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키즈카페에 간 금쪽이네와 친구 가족의 모습이 보인다. 금쪽이는 돌연 "나 못하겠어요"라며 친구들과 거리를 두는데. 엄마는 금쪽이가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않아 걱정이라면서 속상한 마음에 눈물을 흘린다. 잠시 후, 친구들과의 간식 타임에서 금쪽이는 "같이 안 먹고, 나만 혼자 먹을래요"라며 떼를 쓰기 시작하고, 이 모습을 본 오은영은 영역을 침범당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금쪽이에게 도움이 될 맞춤 육아법을 조언한다.